



미국 증시, 업종 쓸림 현상 심화 속 혼조세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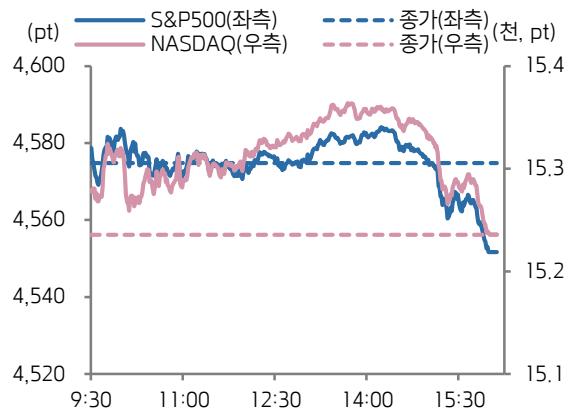
27 일(수) 미국 증시는 알파벳(+5.0%), 마이크로소프트(+4.2%) 등 대형테크주들의 호실적 발표에도, 지수 신고가 경신에 대한 부담감 누적 속 9 월 내구재 주문 부진에 따른 3 분기 성장을 둔화 우려, 인플레 경계심리 재확대 등으로 장후반 하락 압력이 확대되며 혼조세로 마감(다우 -0.74%, S&P500 -0.51%, 나스닥 +0.02%)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엔 보잉(-1.5%)은 EPS -0.6 달러로 예상(-0.2 달러)를 하회하면서 하락, GM(-5.4%)은 매출과 EPS 모두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경기민감주 중심 매도 압력에 동반 하락. 비자(-6.9%)는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매출 가이던스가 다소 낮다는 입장이 부각되면서 하락. 코카콜라(+1.9%)은 매출, EPS, 가이던스 모두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상승, 맥도날드(+2.7%)은 가격 인상에 힘입어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며 계획 발표 상승.

금일 상승한 일부 대형 기술주들 중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과 가이던스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급등했고, 알파벳은 전일 장 마감 이후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다른 플랫폼 기업들에 비해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인한 타격이 크지 않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현물시장에서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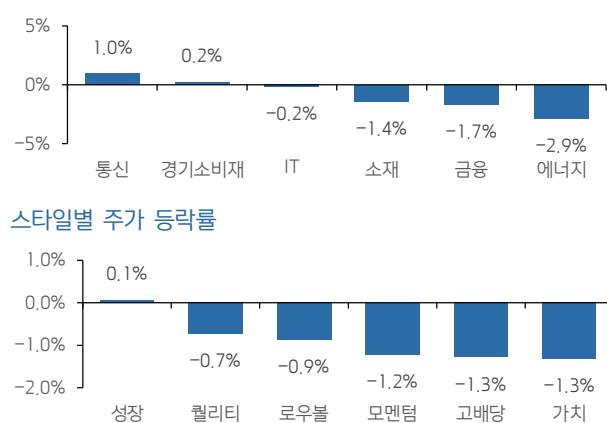
업종별로 커뮤니케이션(+1.0%), 경기소비재(+0.2%)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 하락. 하락 폭이 가장 커던 업종들은 에너지(-2.9%), 금융(-1.7%), 소재(-1.4%) 였음. 에너지 업종은 유가의 2%대 약세 속에서 하락. EU 와 이란이 핵합의 협상 재개에 동의하면서 공급 확대 가능성과 미국 원유 재고가 시장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이 유가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551.68	-0.51%	USD/KRW	1,170.43	+0.29%
NASDAQ	15,235.84	+0%	달러 지수	93.86	-0.09%
다우	35,490.69	-0.74%	EUR/USD	1.16	+0.01%
VIX	16.98	+6.26%	USD/CNH	6.39	+0%
러셀 2000	2,252.49	-1.9%	USD/JPY	113.83	+0%
필라. 반도체	3,360.29	-0.96%	채권시장		
다우 운송	15,723.52	-1.34%	국고채 3년	2.067	+12.5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2.510	+5bp
Eurostoxx50	4,220.88	-0.07%	미국 국채 2년	0.503	+6.3bp
MSCI 전세계 지수	745.84	+0.2%	미국 국채 10년	1.541	-6.7bp
MSCI DM 지수	3,167.44	+0.24%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296.06	-0.09%	WTI	82.66	-2.35%
MSCI 한국 ETF	80.99	-1.27%	금	1798.8	+0.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27%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81%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16%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73.34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삼성전자의 실적 및 컨퍼런스콜
2. 최근 변동성이 대폭 확대된 국내 채권시장 불안 진정 여부
3. 국내 장마감 후 발표되는 ECB 회의 결과, 미국 3 분기 GDP 결과 대기심리 부각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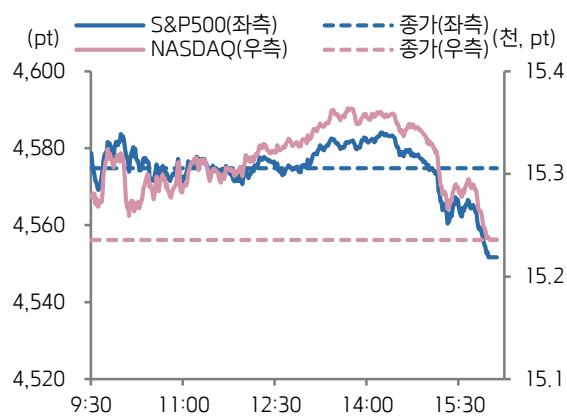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최근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는 미국과 한국의 채권시장 변동성이 증시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 미국 10 년물 금리의 경우, 지난주 1.7%대까지 상승했으나 현재는 빠르게 반락하면서 1.5%대로 내려온 상황. 차익실현 성격이 짙은 측면이 있지만 전거래일 미국 증시가 부진했던 배경은 금리 하락 여파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3 분기 GDP 발표를 앞두고 성장을 둔화 우려가 확대된 영향이 있었다고 판단. 올해 2~3 월, 9 월 등 몇 차례 동안 “금리 상승=주식시장 악재”로 인식됐던 기간이 있었던 만큼, 최근 금리 하락으로 인한 증시 악세에 대해 해석의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금리와 주가는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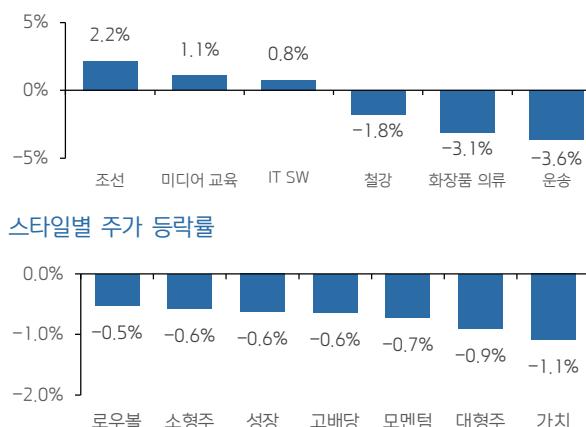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부진했음에도,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테크주들은 호실적에 힘입어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 현상. 현재 미국 증시도 개별 실적에 따라 쓸림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미국과 여타 국가들간 디커플링도 마찬가지), 이러한 현상은 매크로 불확실성과 위험자산선호심리가 공존하는 구간에서 종종 출현하는 경향이 존재. 또한 현재 시장참여자들이 지난 1~2 분기 실적시즌 때보다 이익 성장 자체에 더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상황. 따라서, 실적 시즌 모멘텀이 회복되고 있음에도 단기적으로는 개별 실적 결과에 따라 업종, 기업 간 엇갈린 주가흐름을 보이는 장세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

전거래일 차익실현 압력으로 하락세를 보였던 국내 증시는 금일에도 개별 실적에 따라 차별화된 종목장세를 연출하면서 지수 자체는 제한적인 주가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또한 향후 반도체 업황 및 국내 증시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삼성전자의 컨퍼런스콜 결과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므로, 해당 컨퍼런스콜 발표에 따른 지수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짰습니다.